

고난의 은혜 (열왕기상 12:12-20)

언약 잡은 예배와 기도는 산을 옮긴다. 그 정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인생 전체에도 오직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세가지에 오직 하면 지속적 응답을 받을 것이다. 먼저는 그리스도에 오직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오직하는 것이다. 그리고 강단에 오직을 하는 것이다.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오직으로 언약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냥 은혜를 받는 말씀이 아니다. 그냥 이 주간의 말씀이 아니다. 성취되어 내 현장을 뒤집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는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산을 옮길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냥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에 들어와야 한다. 생명을 걸라는 말을 한다. 그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놀라운 응답과 함께 인생 전체의 답이 올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므로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번 놀라운 축복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기 바란다.

1. 고난의 은혜

고난은 은혜라는 말이다. 그리고 고난이 있어야 이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이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진 슬픈 이야기이다.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때에 백성들이 찾아갔다. 당신들의 아버지 때에 너무나 건축을 많이 하고 노역을 하여 힘들었는데, 이제 당신이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를 좀 쉬게 해달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에게 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였다. 왕이 그 후에 아버지와 같이 일한 신하들과 상의했다. 그때 그 노인 신하들이 백성들의 말을 받아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순한 말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모든 백성이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젊은 신하들과 의논을 했다. 이들은 솔로몬 왕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더 강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듯 멩에를 더 무겁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며 각자 돌아가서 집이나 돌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10지파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열지파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10-12장까지 읽어보면 솔로몬이 너무나 우상숭배를 한 것이다. 11장에도 보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쪽 써봤는데, 그 당시에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열두조각으로 찢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니가 10개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옷 열조각을 차지한 예언을 여로보암이 받은 것이다.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는 뜻이다. 이유가 뭐냐면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죽었다. 그리고 내가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이유를 33절에 보면, 각종 우상숭배를 하고 다윗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34절에 보면 다윗이 잘 율법을 지켜서 솔로몬의 생전에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너의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솔로몬 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의 아들 대에는 다른 신에게 주어버리겠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스라엘은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졌다. 유다에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었다. 유다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다.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 10장 27절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가탕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이 하였다고 하였다. 그 당시에 너무 부자가 되어서 모든 나라에게 계속 조공을 가져오니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은이나 돌이 매한가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백향목은 세상에서 최고의 나무인데 너무 많아서 뽕나무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다. 11장 3절에는 후궁이 칠백명이고 첩이 삼백명이었다고 하였고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는 것이다. 부인이 천명이었다. 그러니 그 여자들이 너무 심심하고 그러니 우리는 종교도 못한다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넘어가게 되어버렸다. 11장 7절에 보면 어느정도였냐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암몬의 몰록을 위해서 산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이다. 그때 이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우상에게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것으로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를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그렇게 안하고 너의 아들 세대에 그렇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나라를 전부 빼앗아 거기에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위하여 돌 예루살렘과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 놓겠다고 한 것이다. 참 안타깝고 씁쓸한 이야기이다. 솔로몬이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보라. 일천번제와 그 때 드린 기도를 보면 보통 기도가 아니었다. 그리고 쪽 읽어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한 기도를 보면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눈물이 날 정도이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 평생을 두고 너무나 잘 나가던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우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 어려움이나 고난, 실패가 있으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 10-12장 읽어보면 내종 다윗은 율례, 말씀,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수시로 나온다. 그런데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만히 당한 사람이었다. 골리앗을 꺾은 대단한 일도 있었지만 자식이 따라오면서 죽이려고도 하였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결정적인 죄도 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다. 거기까지는 참아도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한 것이다. 그것도 표시 안나게 그 위에 있는 장군에게 명령해서 전쟁 중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야만 남겨놓고 나오게 해서 죽게 만든 것이다. 이런 죄와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10여년 때 문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율례를 확실히 붙잡은 것이다. 그래서 성경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시로 내 종 다윗이라고 말하였다. 솔로몬 너도 너의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이 있는 줄 알라는 것이다.

사람이 너무 성공만 지속되면 교만해진다. 어려움을 적절히 섞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축복 때문에 결국 타락하고 자식에게까지 내려갔다. 자식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한 것이다. 르호보암. 아버지 때문에 당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아들 르호보암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걸려서 저주의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자식에게 내려가는 것보다 내가 당하는게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 고난이 내게 있으면, 물론 고난만 있는게 아니라 고난속에서 언약을 잡으므로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왕이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최고의 종이다. 그래서 내 종 다윗이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법도와 율례가 뭔가? 법도와 율례 안에 있는 윤리적인 것도 다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법도와 율례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237이다. 여기에 너의 인생을 담아라. 산을 옮겨 주겠다. 다시 한번 언약되기 바란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 진리가 있다. 그는 그의 말씀대로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내 인생을 그의 말씀대로사는 것이다.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이다. 필요 없다. 그대로 하면 모든 것 정복이다. 거기에 많은 증인들을 써냈다. 성경에, 다윗이 그중의 한 사람이다. 역사 일어나기 바란다. 고난은 감사한 것이다. 고난은 산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유가 뭔가? 언약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진짜 역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너의 모든 저주를 대신하여 내가 죽는다, 이것은 진짜 역사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잡아야 한다. 오직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이 절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내 종 다윗이 되는 것이다. 고난 어려움 불평하면 안된다. 거기에 더 답이 들어있다.

2.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무이다. 먼저 약속하고 그것을 성취하신다. 우리는 예언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예언하시고 그대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이 약속 지키신다. 그리고 위기가 있으면 이 약속을 보호하신다.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하나님은 위기 아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버리는 일이 없다. 버려지지도 않고.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부분에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 다윗의 집이라는 말은 유다왕조를 뜻한다. 성경전체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 7장 13절에도 나온다. 다윗의 집이여 들을지어다라고 하였다. 유다는 두지파만 있는 작은 나라이다. 그런데 북쪽의 큰 나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열지파가 합하여 이 나라에 쳐들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냈다. 이렇게 쳐들어올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연기나는 부지깥이에 불과하다. 너는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였다. 높은데에서든지 깊은 데에서든지 구하라고 하였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 왕이 대단한 소리를 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시험은 불신앙이 들어있는 단어이다. 그러니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안한다는 것이다. 참 선지자가 보기에 어이가 없는 것이다. 대부분은 응답을 못 받아 난리인데, 준다고 해도 안한다는 것이다. 이 왕도 대단한 우상숭배자였다. 그 때 이사야가 한 말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데 들을지어다. 유다의 왕 아사사야, 내가 원하는데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는 것이다. 그때 나온 단어이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 유다지파 하나를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11장 13절에 보면 좀 더 상세하게 나온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고 하였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 이 한 지파가 유다지파, 곧 예수님의 지파이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지 않을거면 지파를 지킬 필요도 없다. 육신으로 오시기 위해 한 지파를 남긴 것이다. 실제로는 두지파이다. 유다와 베냐민, 그런데 계속 한 지파라고 하신다. 그것은 지금 우상숭배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숫자가 포인트가 아니다. 베냐

민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지파 하나를 남겨놓겠다는 의미이다. 북쪽 열지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우상숭배 너무 심해서 앗수르에게 잡혀서 망하게 된다. 귀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를 찢어서 나누는 상황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신 한 지파를 남겨놓으신다는 것이다. 11장 36절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지파를 남겨놓는 이유이다. 내 종 다윗, 곧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종. 이 종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등불을 들고 서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죽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내 종 다윗이 이것을 들고 이 등불을 들고 서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 종 다윗이 누구이겠는가? 이 일을 할 사람을 계속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불을 끄지 않고 세상에 이 빛을 보내기 위해서 이 언약의 등불을 들고 있을 내 종을 계속 보내겠다. 이것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언약의 등불, 그리스도의 빛, 그 언약을 들고 있을 종을 계속 보내시겠다는 것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사상은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언약의 등불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행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죄와 문제 투성이지만 우리를 문책하지 않고 오히려 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 은혜가 이 사상 때문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의 지파를 남기신다. 그리고 그 지파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끝까지 유지하신다. 이것을 위하여 그 나라를 지키신다. 그리고 그 시대도 지킨다. 그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킬 당신의 종을 계속 세우신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내 종, 다윗이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종인 것이다. 이유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언약을 딱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말하고 싶은 그 언약과 같은 언약을 우리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정리가 딱 되어 있다. 정리한 이론 뿐 아니라 이것을 누려서 나타나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인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두고 평생을 드릴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내 종 다윗으로 부름 받은 것이다. 이 언약사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언약가진 한 지파를 지키신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완전하게 보호하신다. 반드시 그 등불을 지킬 내 종 다윗을 계속 세우신다. 그래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수 없는 것이다. 이유는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약으로 잡고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승리한다.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기적을 평생토록 볼 것이다. 이 등불이 그리스도이다. 그의 십자가요, 보혈이다. 이 언약으로 우리는 모든 종류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정복하게 되어 있다. 많은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 언약을 잡은 기도가 그 방법이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한다. 그래서 산이 옮겨지는 것이다. 진심으로 생명을 걸고 다시 한번 언약을 잡아야 한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한다. 속으면 안된다. 속았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한다. 다시 한번 언약을 진심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고백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다. 저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다. 내가 이런 저런 영적 문제가 있지만 이 뱀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결국 24시간 그리스도를 누리므로 땅끝까지 증인될 것을 믿어야 한다. 이 언약의 기도는 산을 옮기는 것이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